

친족행동으로 본 독신의 원가족관계에 대한 토론

이 성 희(우석대학교 아동가정복지학부 교수)

2000년 통계청의 발표에 의하면 독신가구가 우리나라 전체 1439만1천가구 중 15.5%인 222만4천가구로서 지난 1995년보다 35.4%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렇게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 독신가구는 미혼이 43.0%로 가장 많았지만 이혼 후 독신을 선택한 사람도 9.8%로 지난 1995년보다 116.8%가 증가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한겨레신문, 2001.10.16일자) 그동안 독신에 대한 관심은 주로 그들의 숫자가 어느 정도이며, 왜 독신을 선택하며, 그리고 독신을 하나의 삶의 정상적인 형태로 수용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에 집중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 본 논문은 이러한 논의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독신을 하나의 삶의 형태로 인정하는 과정으로써 그들의 원가족관계와 맺고 있는 관계의 특성을 친족행동을 통하여 분석하고자 한 점에 본 논문이 가지고 있는 연구의의를 충분히 찾을 수 있을 것이며, 이와 함께 연구주제의 신선함과 독창성을 감히 높게 평가할 수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토론의 진행을 위하여 몇 가지 측면에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 본 논문의 연구내용을 3가지 정도로 축약하였으면 합니다.

독신의 친족행동과 관련변인의 관계?

독신의 친족행동의 경향은?

독신의 친족행동과 기혼자의 친족행동의 차이는?

2. 그리고 이러한 연구문제를 진행해 나가고 연구결과를 해석해나가는 데에 있어서 전체 친족행동을 중심으로 전개해 나가는 것이 본 논문의 핵심소재인 친족행동을 파악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이러한 이유에는 친족행동의 영역별 문항의 수가 2개 문항이며, 또한 영역별 문항구분에 대한 모호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친족행동의 하위영역별차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면, 두 번째 연구주제인 친족행동의 경향을 살펴볼 때 논의를 해보는 것이 더 타당할 것입니다.

3. 관련변인의 재구성이 있었으면 합니다. 성을 별도의 연구내용으로 삼기보다는 사회 인구학적변인으로 처리하는 것이 보는 사람의 혼돈이 덜 할 것이며, 심리적 변인보다는 독신관련변인으로 재구성해 보았습니다(아쉬운 점은 부모관련변인에서 부모관계에 있어서의 만족도로 측정하였으면...). 그리고 한 가지 궁금한 점은 원가족과 지리적거리를 측정하는 데 있어서 부모, 형제, 자매 각각으로 측정한 것인지, 부모 집만을 중심으로 측정하였는지입니다.

그리고 변인의 영향을 볼 때 부모관련변인을 부모의 친족행동하고만 연결시켜 분석하였는데, 전체적으로 통일을 하였으면 합니다.

사회인구학적 변인: 성, 연령, 학력, 종교, 직업, 소득, 결혼경험 유무

독신관련변인: 독신생활에 대한 만족도, 독신은 불효라는 생각

부모관련변인: 부모의 결혼압력, 부모의 결혼생활만족도, 부모에 대한 부양책임감

원가족관련 물리적 변인; 출생순위, 원가족과의 지리적 거리

4. 원가족관계를 부모,형제,자매로 구성하였는데 조사대상자가 남, 녀 모두를 포함하고 있는 데 이러한 분류보다는 부모, 이성형제, 동성형제로 나누어 보아야 하지 않느냐 하는 의견입니다.
5. 모든 친족행동에서 기혼자들의 친족행동이 더 높은 반면 경제적 행위에 있어서는 독신자가 더 높았다는 점은 흥미로왔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형제자매를 한 범주로 묶어서 비교를 하여 부모, 형제, 자매로 구분한 것과 다른 범주로 비교하고 있는 점이 해석되어야 할 것입니다.
6. 5장 요약 및 함의 부분에서, 친족행동과 관련된 연구결과들에게 있어서 일관적으로 근접성(지리적 거리)는 상당히 중요한 변인으로 부각되는데 본 연구대상인 독신에게 있어서 거의 영향이 나오고 있지 않은데 이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면 합니다(또한 원가족과 거리를 측정하는데 있어서 각각의 거리를 측정하여 본 것인지, 부모 집과의 거리만 측정한 것인지?)
독신의 만족도가 낮을 때 자매와의 일상적 행위는 독신의 만족도가 낮을 때, 형제와의 일상적 행위는 독신만족도가 높을 때 많이 하는 것들에 대한 논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혼자와 친족행동을 비교해 보는 것이 중요한 측면임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한 함의가 빠져 있습니다.

감사합니다.